

# 중앙회장, 서울종로 경우회 방문

## — 전국 地域會 찾아 前·現職 警友들의 노고 치하 —



구홍일 회장이 종로경우회 임원들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구홍일 경우회장이 최근 서울종로 경우회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2월 26일에는 서울 종로 경우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 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종로 경우회에 도착한 구 회장

은 장태규 종로 경우회장과 지역회 임원들의 영접을 받은후 지역회 운영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우회 활성화에 수고하는 종로 경우회 임원진 및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

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우리 경우회가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국가안보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현직의 가장 든든한 후원 조직으로서

후배들의 경찰활동 및 수사권 조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경우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구 회장은 경찰서에 들러 구 은수 서장 및 과장들과 환담의 시간을 갖고 현직 경찰에 대한 경우회의 측면 지원 방안,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 지역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진후 치안상황실에 들러 현직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경우회는 이번 구 회장의 서울 중부 및 종로 경우회 방문을 전국 경우회 방문의 시발점으로 삼고 향후 일정에 따라 중앙회장이 전국 시·도 및 지역회를 순회함으로써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조직운영에 수고하는 警友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그간 각 급회들이 이룩해 놓은 조직혁신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현직 지휘관들과도 만나 경우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제고와 상호 유대강화 방안, 현직에 대한 측면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 76세 老警友, 56년만에 碩士 학위 취득

## — 全炳機 대구참전회 부회장, 7년간 대구-서울 통학으로 —



6.25 전쟁과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칠순의 老警友가 만학도로써의 향학열을 불태워, 56년만인 지난 2월 21일 영예의 석사 학위를 받는 인간 승리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우회 대구 지부 부회장과 수성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 참전경찰유공자회 부회장(76세)을 맡고 있는 전병기 警友로, 그는 이번에 『의료 분과에 있어서 의사의 설명 의무』란 논문으로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에 집념과 열정을 보여 줌으로써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음을 몸소 보여 주었던 전 부회장의 학구열은 실로 대단했다.

전 부회장은 6.25 전쟁시절인 지난 51년 법관의 꿈을 안고 부산에서 당시 신승대학교(경희대의 전신)에 입학했으나, 가난과 전쟁은 그의 꿈을 좌초시키고 말았다.

지난 52년 정쟁이 끝나고 학교가 서울로 옮겨져 같이 상경했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경찰의 길을 택했다.

전 부회장은 월급으로 간신히 학업을 계속했고, 전국 각지로 빨치산 토벌에 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6년만에 4학년까지 올랐으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는데, 지난 56년 대구경찰서로 전출 명령을 받는 바람에 졸업을 1년 앞두고 안타깝게도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 부회장의 향학열은 식지 않았다.

지난 2000년, 그는 50년만에 다시 경희대를 찾아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수차례 선처를 요청한바, 마침내 학교측은 70세 노인의 학구열에 감복해 3학년 1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입학을 허락해 주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구에 거주하던 전 부회장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4시간 30분 동안 기차를 타고 서울 경희대까지 등교하는 열정을 보였다. 손자뻘 되는 학생들과 수업을 마치고 다시 대구집에 도착하면 다음날 새벽이 되었고, 퇴직후 이어받은 5대 家業인 한의 원 약제 업무까지 보고 나면 눈을 붙일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 험난한 생활 이어가기를 7년. 전 부회장은 그 결심으로 지난 2월 갈망하던 석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학교측은 전 부회장의 나이를 초월한 향학열에 감복해 총장 명의의 공로장까지 수여했다.

『젊을때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고 7년동안 새벽기차를 타고 다녔다』는 전 부회장.

『晩學徒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책과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2시간 먼저 일어났고, 밤에는 내가 돌아오기 2시간 전부터 저녁준비를 해준 부인에게 제일 먼저 감사사를 표하고 싶다』며 『조만간 마지막 소망인 박사과정을 준비중』이라고 당찬 각오를 보였다.

# 2007년도 警友장학금 전달

## — 創立 30주년 맞아 54명에게 총 5천 5백만원 —



장학회 임원들과 수혜 학생들이 함께했다.

(재)경우장학회 제 30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월 23일 오전 11시 경우회 회의실에서 문학동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12명, 수여대상 학생 및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전현직 경우 優秀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 주었다.

이날 수여식은 상경례를 겸한 임원 및 내빈 소개, 연혁 소개, 장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임원들에 대한 공로장 전달에 이어 영국 엑스터 대학 연극예술학과 황하영, 일본 APU 대학 APS학과 신해미, 서울대학 사회과학과 이혜미 등 우수 학생 54명(현직 경찰관 자녀 3명 포함)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천 4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서울대학교 이혜미 학생에게 표창장과

특별 격려금 1백만원, 부산 부경대학교 사학과 유수진 학생에게 표창장과 박종순 이사의 특별 격려금 1백만원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학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수한 성적으로 경우장학금을 받게 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여러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警友들이 정성으로 기탁한 뜻 깊은 혜택을 받게 된 만큼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7년 설립 이후 금년에 30주년을 맞게 되는 (재)경우장학회는 매년 뜻있는 경우들의 장학금 출연에 힘입어 약 13억원의 기금을 모아 왔고, 지난 2002년에 38명, 2003년 30명, 2004년 30명, 2005년 31명, 2006년 35명 등 매년 우수 학생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 기금 20억 모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수사구조 개혁에 일익 담당 결의

## — 搜友會 정기 모임 개최 —



수사간부 출신들의 모임인 搜友會가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최중락 회장, 이규식 경찰상임위원, 주상룡 경찰청 수사국장 및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회원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현직 경찰들의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측면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중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도 현직 후배들의 수사구조 개혁과 회원 친목도모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더욱 합심하여 우리의 저력을 보여 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주상룡 경찰청 수사국장도 『우리 경찰도 올 한해 내실을 기해 경찰 수사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니 만큼 선배님들도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주문했다.

# 李相斗의 교통상식(47)



(29)는 두달전 면허를 딴 초보운전자다. 초보인데다 평소 조심은 이 켜졌더라도 앞 신호때 미처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차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은 선신호

다. 김씨는 전 신호때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택시 문짝을 세차해 들이 받고 말았다.

김씨의 새차와 택시가 대파된 것은 물론 택시 안의 승객도 부상을 입게 되는 큰 사고를 내고 만 것이었다.

교차로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고 잠시 후 교통경찰관이 도착되었다. 경찰관은 “녹색 신호등이 켜졌더라도 앞 신호때 미처 교차로를 빠져 나가지 못한 차에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은 선신호

# 교차로 녹색신호 받고 출발했어도 선신호 진행차량에 통행 양보해야

급히 회사로 들어가야 했다. 교차로는 마침 퇴근 차량이라 엉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얼마 지나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확인한 김씨는 급한 마음에 넓다 차를 몰았다. 사고가 난 것은 바로 그때였

차량인 택시에게 우선통행권을 무시한 김씨가 져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상대차량과 부상 피해자를 보험처리해 주고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안전운전불이행 과실로 4만원짜리 범칙금을 받은

#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진압경찰 투입반대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시위진압이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 공격당해 쓰러지는 경찰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